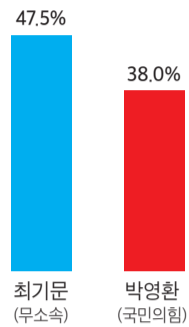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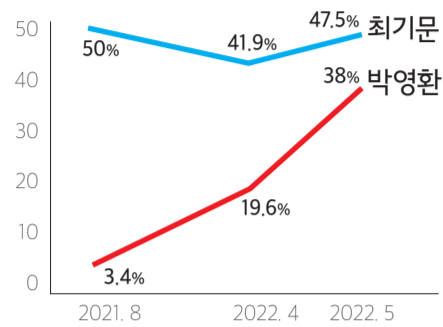
<무소속> 최기문 47.5% 박영환 38%... 9.5%p 한자릿수 격차 남은 선거 기간 변수



최기문(무소속) 박영환(국민의힘) 이정호(무소속)



- 6.1 영천시장 후보 지지도 -



민주당 표심 최기문 후보에 대거 이동
 최기문 후보 굳히기, 박영환 후보 갈수록 상승세, 격차 좁혀
 남아 있는 선거기간과 본선거 운동기간 13일이 변수

오는 6.1지방선거가 13일 남은 가운데 17일 영천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폭발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영천시장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힘(박영환)과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리는 최기문 현 시장과의 한판 대결로 굳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기문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영천시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민주당 표심 움직임이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경상매일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공정(주)'에 의뢰해 영천시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2022.5.14.-5.15) 발표에 따르면 무소속 최기문(47.5%) 후보가 국민의힘 박영환(38%)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9.5%p 앞서고 이정호 후보는 2.6%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박영환 후보는 완산·남부·서부동과 북안면에서 37.9%, 금호읍·대창·청통·신녕·화산면 41.1%, 동부·중앙동 35.1%, 자양·임고·고경·화북·화남면에서 39.2%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반면 무소속 최기문 후보는 완산·남부·서부동과 북안면에서 43.4%, 금호읍·대창·청통·신녕·화산면 46.7%, 동부·중앙동 51.3%, 자양·임고·고경·화북·화남면에서 45.9%의 지지율을 얻어 두 후보간 지역 편차는 동부·중앙동에서 16.2%p로 가장 높았고, 완산·남부·서부동과 북안면에서 5.5%p로 가장 낮았다.
 또 무소속 이정호 후보는 완산·남부·서부동과 북안면에서 2.5%, 금호읍·대창·청통·신녕·화산면 2.3%, 동부·중앙동 1.7%, 자양·임고·고경·화북·화남면에서 4.8%의 지지를 얻었다.
 ▲연령·성별 지지율 중 특이한 것은 20·30대를 제외하면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30대에서 박영환(28.8%) 후보에 비해 최기문(55.6%) 후보가 26.8%p의 높은 격차를 나타냈고, 만 18~20대는 1% 미만, '지지 후보가 없다'가 11.9%를 보여 선거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았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53.9%가 국민의힘 박영환 후보를, 37.9%가 최기문 후보를 지지해 국민의힘 표가 크게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

지자의 경우, 64.9%가 최기문 후보를, 5.5%만 박영환 후보를 지지해 대조를 보이면서 최 후보에게로 민주당 표심이 대거 이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 영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박영환 후보 지지자의 51.6%가 '매우 도움을 줄 것'이라 답한 반면, 최기문 후보 지지자 68.1%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해 극명하게 갈리면서 많은 최 후보자 지지자들이 지역 현안에 해결에 여당의 역할 기대에 부정적 표심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영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영천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오는 19일 본선거일부터 남은 선거일까지 13일간 뒤집기를 위한 치열한 추격전이 예상된다.
 앞서 그동안 세차례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경북신문 여론조사에서 최기문(50%) 후보와 박영환(3.4%) 후보 간 46.6%p의 큰 표차를 보인 후 지난날 매일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최 후보(41.9%)와 박 후보(19.6%)간 23.3%p의 표차를 보이다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최 후보(47.5%)와 박 후보(38.0%) 간 표차는 9.5%p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박 후보의 상승세가 현격하게 두드러져 막판 역전

승을 노려볼 수 있는 초접전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영천시장 선거 판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매일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공정(주)'에 의뢰해 영천시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를 실시했다.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유선 ARS(37%), 유선전화 RDD 주요국번 8개 0001~9999 무작위생성추출·무선 ARS(63%) - 휴대전화 가상번호 7796개 무작위 추출로 표본수(최종 응답) 702명, 응답률(전체) 7.3%, 표본오차-95%신뢰수준 ±3.7%p다.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통계보정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 립가중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이며 조사기간은 2022년 5월 14(토)~5월 15(일)이틀간이다.
 ※또 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2021.8.12. 경북신문이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 지난 2021. 8. 9.-10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22. 4. 여론조사는 2022. 4. 11.-12일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영천시장 후보 여론조사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정책지원관 공개 채용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16일 2022년 제1회 영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인 정책지원관 3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세 이상)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여야 하며 지역과 성별 제한은 없다.
 임용자격 기준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행정 7급으로 채용되며 임용기간은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영천시의회 사무국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타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054-330-296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그릇의 만족

5월 28일(토) 확장이전합니다

영천시 고경면 단포 구보길43-6

(054) 333-4710 (탁기만)

입법 활동 전국 꼴찌... 매월 100만원 넘는 입법·연구 활동비만 챙겨

영천시의회 12명 중 8명이 임기 4년 동안 조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아 [8명] 전종천·정기택·조창호·이영기·우애자·서정구·박종운·조영제 의원

6.1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전국 3,860명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임기 4년 동안 조례안을 단 한번도 내지 않은 의원이 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천시의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이 2018년 당선된 제7대 기초의원 입법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 1/4이 1년에 한 건

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고 4년 임기 내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무려 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경북 영천시의회와 경주시, 경남 진주시, 전남 보성시 의회 등의 입법활동이 가장 저조했다고 밝혔다. 즉 영천시의회가 전국 꼴찌인 셈이다.

영천시의회 시의원은 모두 12명,

지난 4년 동안 발의된 조례는 11건이다(규칙과 미상정 조례는 제외). 의원 1명당 평균 0.92건으로 전체 의원 67%인 8명이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본지 확인결과 더불어민주당 최순례·김병하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태 의원이 각각 3건씩이고, 국민의힘 이갑균 의원이 2건으로 그나마 형식적으로 조례 발의 체면을 지켰

지만 그것도 일부 조례는 대부분 타 지자체 조례를 복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네 명의 초선의원(조례발의자)을 제외한 4선 무소속 전종천·정기택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조창호·이영기·우애자·서정구·박종운·조영제 의원 등 8명은 4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이 넘는 활동비만 받아 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A의원은 "대부분 조례도 타 지역의 조례를 복사

또는 형식 수준이고, 또 지역이 시골 특성상 조례 입법활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새 의원들은 잘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시의원이 뭐 필요한가, 본래 시의원의 역할인 시정의 감시·감독은 외면하고 시민 혈세만 축내면서 이권에 만 눈이 멀어 오히려 영천시와 싸고 치는 거수기 활동 아니냐"며 시의원 무용론을 또다시 강조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인구수, 2018년 연말로 되돌아 와... 市 종이인구 늘리기 시책 실패 지적도

민선 7기 인구시책 효과 성적 거의 없어... 공무원 강제 주소 옮기기 더는 안 돼 영천시, "인구늘리기 어렵다" 사실상 시인... "머무는 유동인구 증가 시책으로" 전환

영천시 인구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실패한 시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어나는 전국적 인구감소 현상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그동안 市는 업무 최우선 과제를 인구증가에 맞추고, 최 시장이 직접 노인대학에 강의를 나가는가 하면 임신·출산·보육·귀농 및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장학지원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구증가에 올인해 왔다.

더군다나 영천시 공무원 노조의 직원 동원 주소옮기기 중단 약속까지 여기며 지금까지 시청 공무원을 강제해 주소 옮기기 강요는 물론 기

업체 직원, 군부대와 폴리텍대학 기숙사 등 종이인구 늘리기에 올인해 왔다.

특히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2019년부터 ▲생활지원(결혼, 출산, 보육, 교육 등) ▲일자리창출(신산업육성, 기업 유치 등) ▲인프라구축(주거, 문화, 교통, 의료 등) 3개 분야에 대해 '시책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왔지만 市인구정책 부서는 기업 유치 등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구증가 실적 자료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본지가 16일 최근 4년간 영천시 인구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영천시의 보여주기식 홍보에 비해

2019년 연말부터 매년 수백명씩 줄어 들면서 올해 4월말 인구는 2018년 12월(101,595명)보다 103명 줄어든 101,429명을 기록해 최기문 시장 취임해인 4년 전 인구로 회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한 산부인과 설치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산 역시 2018년 520명에서 2019년 618명으로 첫 해 잠시 98명 증가했으나 2020년 574명(월평균 47.8명), 2021년 552명(월평균 46명)으로 내리 3년 째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자는 2018년 월평균

91.4명, 2019년(90명), 2020년(101.2명), 2021년(95.7명)으로 취임해 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하여 영천시는 "출생율 감소, 사망률 증가라는 대세적인 전국적 인구감소 현상으로 사실상 인구 증가는 어렵다"면서 "대신 올해부터는 머무는 유동인구 늘리기로 선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 인구증가 시책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에 성공하면 한 지자체가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최대 280억원을 등급별로 배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공모를 위해 전국 85개 지자체(경북

16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어 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올해부터 10년간 7,500억원을 매년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배분하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이달 말일까지가 공모기간이다.

여기에 영천시는 청년들이 없으면 근본적 인구증가는 요원하다고 보고 종전 인구증가 시책을 일부 변경해 청년들의 활력을 되찾는 시책을 발굴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유출은 막는 주거인구 늘리기 즉, 머물다 갈수 있는 유동인구 늘리기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공모 사업이 영천시 인구증가에 얼마나 기인할 지는 시민 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선관위, 본지 보도 조사 민주당 경북, 영천비례대표 공천 논란

[본지 지난 5일자 338호 1면]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비례대표 공천 논란」 제하의 '민주당' 비례대표 B씨, 최기문 영천시장이 추천 기사와 관련해 영천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A당원은 자신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지난 1일 경북도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내용에는 "지역 당협이 자신을 경선으로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말해 놓고 특정인을 전략 공천했다"고 밝히고 또 이 과정에서 현 무소속 최기문 영천시장이 민주당 비례대표를 추천했다. 지역 민주당이 영천시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우리(민주당)는 무소속 최기문 시장을 밀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영천시선관위는 현재 이 건과 관련해 경북도당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도 영천시선관위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지수 기자

폐업으로 떠나는 다이셀, 말리는 민주노총... 영천시 역할은?

일제 전범기업 10년간 영천시가 부지 임차료(15억5천만원) 무상 지원 일제 전범기업 특혜라며 떠나라고 외쳤던 다이셀 떠나자... 이번엔 민주노총(경주)과 근로자들, "영천시에 근로자 일자리 지켜달라" 요구

일제 전범기업으로 인식되었던 일본 다이셀세이프시스템즈코리아(이하 다이셀)가 오는 6월30일자로 폐업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천시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132 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이셀은 2012년 7월 기공식을 갖고 경북 영천 채신공단 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영천첨단소재부품소재산업지구에 동지를 튼 외국인투자 1호 기업이다. 경북도와 영천시로부터 ▷공장부지 10년 임차료(15억5천만원) 무상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3년 면제 ▷취득세 15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오는 6월30일이 해택(계약) 만료일이다.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지부장 정진홍) 및 다이셀지회 등은 '떡튀행각'과 일방적 폐업 통보를 하는 다이셀의 이같은 면제 혜택을 문제 삼으며 지난 11일 영천시청 현관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영천시와 관계기관에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다이셀은 재고물량이 많다는 핑계로 지난 4월 부분 휴업에 이어 이달부터는 전면 휴업 조치를 했다. 또 "이달 3일과 4일에는 노사 간담회와 전 직원 폐업 관련 설명회를 통해 300억원 이상의 누적 적자와 지난해 자본잠식 후 일본 본사로부터 회생불가 판정을 받아 6월 30일 기준 재직자 전원 사직 처리와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천시에 공장 정상가동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즉, 노조는 영천시에 "온갖 혜택을 받은 다이셀의 '떡튀 행각'과 일방적 폐업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이셀 폐업(철수)으로 하루아침에 잃게 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 달라"는 요구다.

다이셀은 2012년부터 자동차 에어백용 인플레이터(가스발생장치)를 생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1차랜드 업체다. 현재 현대는 이 장치를 자체 생산해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다이셀의 역할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6년 사)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회장 김종대)

등은 "영천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일제 전범기업 다이셀에 대한 지원 특혜 등을 즉각 중단하고 다이셀은 대한민국을 떠나라"며 수차례 집회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다이셀이 기업 유지가 힘들어 폐업하고 떠나려하자 이번에는 지역 노조와 다이셀 일부 근로자들이 영천시에 다이셀이 떠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영천시가 난감해 하는 이유다.

한편, 영천시는 "다이셀의 폐업 결정은 사실상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오는 18일 대책반을 구성해 근로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논의해 실업급여 및 대체일자리 및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본사를 둔 다이셀코퍼레이션이 영천공장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영천 다이셀세이프시스템코리아는 2017년 하반기 44명(전체 고용인원 160명)을 고용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경북도로부터 인증 현판과 6백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다.

장지수 기자

“육아지원센터 조기 설립해 아이키우기 좋은 영천 만드는데 일조”

본지 단독 특별인터뷰
[하기태 영천시의원 후보]
(영천시의원 다-선거구)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영천시의 주요 현안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있어 본지가 단독 특별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동안 영천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지만 2022년 4월말 현재 영천시 인구는 오히려 2018년 연말보다 103명 줄어든 101,492명을 기록했다. 또 본지가 5년여간 지속적으로 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연중 기획 연재를 해 왔고, 영천시 핵심 인구증가 프로젝트 역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다. 따라서 이번 본지 단독 인터뷰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보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질문 : 본지 장지수 기자, 답변 : 하기태 후보] <편집자 주>

한창 선거운동이 바쁜 와중에 지난 13일 오후 하기태 시의원 후보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선거운동 관계로 허락을 얻기가 매우 힘들었다. 본지가 5년여 보도해 온 영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연중 기획에 합치되는 공약이다. 어렵게 허락을 받았다.

[기자] 지금까지 어느 후보도 아니 영천시도 후보님처럼 이렇게 보육에 관한 자세한 개선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같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보육 공약을 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하기태] 예, 보육에 관해서는 제가 3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깨닫지 못한 부분인데 현재 영천시의 최대 당면 과제가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입니다. 퇴직 후 시민들과 자주 접하고 또 정치를 해보려 하니 진정 영천시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면서 주변에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자주 소통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보육의 질 개선이었습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는 아이키우기가 편해야 어머니들의 일·가정 양립으로 경제활동도 원활해지고 또 이로 인해 아이 낳기도 부담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니 예산지원의 효율적 배치, 행정지원 및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이번 공약으로 실천 의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기자] 영천시의 전체적 보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하기태] 현재 영천시 인구는 약 10만1천명입니다. 어린이집 수는 국·공립 11개소를 포함해 사립·법인·가정어린이집 48개소가 있고, 보육교사 500여명이 0~5세(한국 나이 7세)이하 시 전체 어린이 약 3,800명 중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

린이는 겨우 53%인 1,800여명에 불과합니다(2021년 자료), 그런데 아이러니 한것은 매년 신학기만 되면 각 어린이집에서는 아이 모시기 전쟁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경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아이 수가 곧 어린이집 흑자 운영을 말하죠, 이런 경쟁속에서는 보육의 질 개선은 어렵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통합과 무상보육 방향으로 바뀌고 2023년까지 지역 어린이집의 40% 이상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비해야 합니다.

[기자] 보육질 개선에 가장 우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기태]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모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1인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종전보다 낮추어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하면서 어린이집에 보육을 받는 누리과정(5~7세)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차별화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지역에는 현재 육아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센터를 설립해 어린이집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대체교사 지원과 또 행정 및 물리적 어린이집 환경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 보육에만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 주도적 획일화 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보육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조직할 방침입니다.

[기자] 보육현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군요 이런 공약은 시의원이 아닌 시장 정도의 공약 같은데 시의원에 당선돼도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하기태]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도의원, 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현안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나온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출산장려 정책보다 아이키우기가 우선입니다. 아마 모든 정치인들이 들여다 봐야할 내용이고, 니편 내편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원장들이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정치인은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기자] 더 하실말씀이 있습니까?

[하기태] 네, 이 외에도 어린이집과 기관 및 학부모 사이에 보건복지부 지침위반 사항 등 미묘한 갈등 내지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숙제입니다. 또 어린이집 정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강화, 장애 및 일반 영유아 통합보육 현실화, 교사의 호봉 및 근로관계, 보육교사 양성, 시간제 보육, 보육예산 지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 등 무수히 많은 복잡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파악하는데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적어도 3~4년간 집중해야 겨우 전문가가 될 정도입니다. 영천 단독 육아지원센터를 조기에 설립해 반드시 임기 내에 아이키우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기자] 영천시 현안과 저의 신문의 기본 방향과 동일한 공약입니다. 또 후보님의 많은 연구 결과가 이번 선거의 당락과 관계없이 영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하기태 후보는 이번 선거 영천시의원 다-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보육·육아·보육환경개선을 공약으로 초중고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영천시 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현실적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테스크포스 조직,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 취미 생활 1위 낚시!
민물낚시의 성지 영천!
전국 최다 저수지를 보유한 영천!

낚시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피싱엠 낚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영천 피싱엠 낚시
영천시 영화로 98
☎ 054) 335-3303

피싱엠 낚시하는 사람들!!
FISHING MEMBERS
www.fishingm.co.kr

이철우 도지사 13일 후보등록, 강성조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3일 후보등록을 함에 따라, 12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선거기간 중 중립을 지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K-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초 국비 10조원 시대와 투자유치 10조원 시대 개막,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이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국별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잡았다면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500만 규모의 경제권, 자치권의 완전한 보장이 꼭 필요

하다는 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선거가 끝나는 6월 1일까지 강성조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한우 기자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원팀

국세청 20년·재무부 10년 경력, 경제통 상임선대위원장 합류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최 시장, 오직 자신의 재선만 바라봤다"



국민의힘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가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선거 대책본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영천시장 탈환에 새 바람이 일 전망이다. 지난 14일 오전 박영환 선거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청장의 합류로 선대위 원팀 구성이 완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전 청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수락은 이번에 반드시 영천시장을 바꾸어 힘있는 여당 체제로 변화시켜야 영천이 발전 할 수 있다는 뜻을 같이한데 이어 박 후보의 강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체된 영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박 후보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영환 후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영천시장 후보 당 경선에서 미온적이었던 김 전 청장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 원팀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면서 본격 선거 열풍을 일으켜 나가겠다는 각오다.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은 "오직 시민

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최기문 후보는 재임 4년 동안 영천의 미래보다 오직 재선에만 올인하는 시정을 펼쳐왔다"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최 시장)자신의 재선을 위한 보여 주기식 행정과 민원인 회피, 시민들을 니편 내편으로 갈라치기에만 급급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 통합에는 실패한 단체장이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뿐 아니라 지방의 정권교체도 중요하다"면서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영천에서도 당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한 대학총장이 최 시장 4년 임기 중 최대 업적이 버스 승강장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 놓은 것이라는 공개 발언에 최 시장 역시도 자신의 취임 후 가장 우선한 일이 그 일이라고 말한데 대해 영천 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면서 "영천시민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영천시장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상임선대위원장 합류로 "박영환 후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에 김 위원장의 영천발전 로드맵이 더해지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힘을 하나로 합치면 영천시장 교체는 확실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장지수 기자

영천소방서, 합동 인명 구조 훈련 실시

보현산댐 질와이어 사고대비 영천소방서(서장 김용태)는 11일 오전 영천시 보현산댐질와이어 체험장에서 구조대원 및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사고 대비 인명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월 보현산댐질와이어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합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훈련은 봄철 증가하는 체험객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소방서, 민간 시공업체 합동 인명구조훈련이다. 주요 내용은 ▲하강 시설 구조

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 토론 ▲특수사고 유형별 요구조사 구조 기법 현지 적응훈련 ▲민간 시공업체와 운영사 합동 대응 절차 훈련 등이다. 앞서 지난 1월7일 영천보현산댐(화북면) 질와이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을 일으켜 당시 10대 청소년 탑승객 2명이 두 시간 넘게 고공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구조에 나선 직원까지 도르레 고장으로 사고지점 40m전방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소방서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았다. 장지수 기자



영천전자고 ◀▶ 해병대 제1정보통신대대...정보통신 인력 양성 협약

영천전자고(교장 권철환)와 해병대 제1정보통신대대(대대장 나국진)가 우수 정보통신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1일 학교 교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학·군 상호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나 대대장은 "이번 협약으로 미래 해병대 정보통신 전력 향상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우수한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및 물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철환 교장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양기관 모두 지원 확대를 약속한 것. 영천전자고등학교는 1947년 재단법인 산동중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산동고등기술학교 ▷산동농업고등학교 ▷학교법인 산동학원 ▷산동종합고등학교 ▷영천공업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2003년 영천전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오늘에 이른다. 학교는 또 2013년 중소기업청 선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학교로 이름을 알리고, 지난해에는 국방부 선정 군(軍) 특성화고로 지정(해병 정보통신)되면서 본격 정보통신 기술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박한우 기자



청통·지곡초, 공동 문화체험학습 행사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청통초등학교(교장 임진성)는 11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지곡초등학교(교장 정기원) 전교생과 함께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인 '2022 문화체험학습'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양교 교사들의 협의회에서 다양한 의견 도출의 결과로 1회성 소비적 체험학습 지양과 천년 역사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사고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추

진됐다. 먼저 고학년은 교과활동과 독서 활동으로 배운 역사적 사건과 인물, 유물을 집중탐구해 경주역사지도 제작활동을 했고 저학년은 '삼국유사읽기' 및 관련 유물과 유적 알아보기 활동으로 체험학습의 동기를 일깨우도록 했다. 한편 청통초등학교는 올해 학생수가 34명, 지곡초등학교는 22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양교 학생들이 함께 하는 수업과 체험학습운영으로 공동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전국 최초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개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45% 최소 1회 이상 위기 경험

경북도는 11일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강당에서 올해 초 도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경북도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경북도는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45%가 최소 1회 이상 폭력 및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만큼 근무환경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는 사회복지인들을 대상으로 ▶신변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위기대응 및 심리상담 지원 ▶근무환경 개선 프로그램 ▶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도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한우 기자

경북도, 은퇴 지역 과학인 연구환경 조성 '지식타운' 만든다

경북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북도가 지역 과학인들이 은퇴 후 지식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인타운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지식인타운 명칭은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가 된다. 도는 11일 경북대, 안동대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략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는 지역 여건과 정부 정책을 연계 종합분석하고, 골든사이언스파크 내 도입가능

과 시설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개발수요와 사업타당성 분석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오동훈 한국주택학회 교수는 "은퇴 과학기술인들이 정주·순환하며 지속해서 연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의 백신바이오산업 및 융복합 인문환경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연구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강조조 행정부지사는 "고령력 지역 과학기술인의 역량이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다른 기술·산업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이번 사업이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전략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에는 은퇴과학자 연구단지, 신도시 연합캠

퍼스, 은퇴과학자 마을·휴양단지, Global 은퇴과학기술 커뮤니티 구축 등이다. 장지수 기자

'경북농업기술원' 건축설계 청사진 나와

국제공모 선정...건축가 디에이 작품 'Beyond Horizon'



경북 상주시로 이전 계획인 경북 농업기술원 설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현재 경북농업기술원은 대구 북구 칠곡에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본원 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을 위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 공모 당선작은 건축가 디에이 작품으로 이름은 'Beyond Horizon'이다. 이 작품은 경북도가 지난 3월 25일 국제공모로 선정한 것이다. 기술원 설계지침으로 주문한 신청사 설계방향에 설계사의 생각을 더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계획단계의 설계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술원은 직원들은 내부 공간의 기능별 재배치와 미흡한 시설 보완 등을 요구하여 앞으로 사용자와 설계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신청사 이전 준비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농촌진흥기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설계공모 당선작은 9일부터 경북 농업기술원 1층 현관에 상시 전시하고, 청사진과 건축모형, 조감도, 설계도판 등도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장지수 기자

경북교육청 공무원, 독도수호 결의대회

경북교육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소속 공무원들의 독도 사랑과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토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 안보질서의 갈등과 대응 국면을 이해하고 유사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경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36명이 우리 땅, 우리 국토인 독도 수호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경북교육청 총무과장은 "우리 국



토 독도는 '삼국사기', '속중실록'과 같은 역사적 기록이 증명된 명백한 우리 국토이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 경북교육청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주권 수호 정신으로 독도 수호 결의를 다지고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우 기자

투표로 밝히는 온 동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일시: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nec.go.kr)에서 확인 가능

사전투표

일시: 5월 27일(금)~5월 28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선거 알아보기!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

- 지방자치단체장
- 시·도지사 선거
- 구·시·군의 장선거
- 지방의원
- 시·도 의원선거(지역구)
- 구·시·군 의원선거(지역구)
- 시·도 의원선거(비례대표)
- 구·시·군 의원선거(비례대표)
- 지방교육자치
- 교육감선거

세종시(4장) 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제주도(5장) 교육감, 도지사,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 (전국 11개 국회의원선거구)

※ 투표 시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교육감선거 더 알아보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순서가 바뀝니다.

※ 세종시와 제주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 배정

투표소 가기 전, 정책·공약 확인하기!

-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방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후보자토론회 시청

투표소 갈 때 꼭 챙기기!

신분증과 마스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며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 참여하는 유권자 그리고 정당·후보자까지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 선거사무 필요 인력: 사전투표 약 10만 명, 선거일 투표 약 19만 명, 개표 약 9만 명

* 선거사무 필요 시설: 사전투표소 약 3,500 개소, 투표소 약 14,500 개소, 개표소 약 260 개소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든 **1390**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6.1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지역 선출직 100% 본 후보 등록

도의원 영천 제1선거구 이춘우 후보 무투표 당선 확정

경북도지사 - 임미애(민)·이철우(국),
경북도교육감 - 임준희·마숙자·임종식
영천시장 - 박영환(국)·이정호(무)·최기문(무),
경북도의원 - 이춘우(국)·이영수(민)·윤승오(국)

오는 6월 1일 치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및 영천지역 시장·도·시의원·비례대표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이 13일 모두 본 후보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까지 이틀간 6.1지방선거 선출직 본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초 지역 예비후보자들 100%가 모두 본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지사 2명]

경북선관위는 이날 경북도지사예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현 경북도의원과 ▲국민의힘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 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55세 (더불어민주당)

이철우, 66세 (국민의힘)

●임미애(55세) 후보 주소(의성군), 직업(경북도의회의원), 학력(이화여자대학교), 경력(현 경상북도의회의원, 전 의성군의회의원), 재산(12억6,021만1천원), 전과(없음)

●이철우(66세) 후보, 주소(안동시), 직업(현 경상북도지사), 학력(연세대 석사), 경력(전.제18.19.20대 국회의원, 현 경상북도지사), 재산(21억4,523만원),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

[경상북도교육감 3명]

또 정당 구분 없이 깜깜이 선거로 알려지고 있는 경북도교육감에는 ▲현 임종식(안동시) 교육감에 ▲임준희(포항시) 대구대초빙교수와 ▲마숙자(김천시) 교육인 두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어 모두 3명이 결전을 치르게 됐다.



임준희, 59세 대구대학교 초빙 교수

마숙자, 63세 교육인

임종식, 66세 현 경상북도교육감

●임준희(59세) 후보 주소(포항시), 직업(대구대학교 초빙교수), 재산(21억1,880만원), 학력(미국펜실베이니아주립대 박사), 경력=전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전과(없음)

●마숙자(63세) 후보 주소(김천시), 직업(교육인), 재산(11억 968만7천원), 학력(계명대학교

박사), 경력=전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전 인동초등학교 교장, 전과(없음)

●임종식(66세)후보, 주소(안동시), 직업(현 경상북도교육감), 재산(8억5,572만1천원), 학력(고려대학교 석사), 경력=현 경상북도교육감, 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전과(없음)

[영천시장 후보 3명]



박영환, 55세 (국민의힘)

이정호, 56세 (무소속)

최기문, 69세 (무소속)

영천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박영환 전 경상북도의원, ▲무소속 이정호 (주)발마늘식품 대표, ▲무소속 최기문 현 영천시장이 최종 본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격돌한다.

모두 군복무를 마쳤고, 재산은 세 후보 중 박영환 후보가 21억5,659만9천원으로

가장 많고, 최기문 후보가 8억3,321만4천원, 이정호 후보는 1억587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특이점은 박영환 후보를 제외한 이정호·최기문 두 후보가 각각 전과가 1건씩이고 이정호 후보의 경우 최근 5년 간 채납액이 64만2천원이 있다.

전과기록 내역은 ★무소속 이정호 후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150만원, ★무소속 최기문 후보는 한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 처분을 받았다.

[도의원 후보 3명]

경북도의회의원 영천 제1선거구 이춘우 후보 무투표 당선 확정!



이영수, 47세 (더불어민주당)

윤승오, 60세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는 제1선거구에 ▲국민의힘 이춘우(52세) 현 경상북도의원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 확정됐고, 제2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영수(47세) 농업인과 ▲국민의힘 윤승오(60세) 현 경상북도의원이 최종 등록을 마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간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재산은 이영수 후보가 4억4,119만6천원으로 윤승오 후보 8억6,382만5천원보다 절반 정도로 작지만 반대로 재산세 납부액은 이영수(1백76만5천원)후보 보다 윤승오(7천291만9천원)후보가 40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각 전과기록이 1건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후보는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집행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의 처분을 받았고, ★국민의힘 윤승오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6.1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의회 후보 22명

[영천시의회 후보 22명]

오는 6.1지방선거 영천시의회 의원의 정원은 비례 2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21명(비례대표 3명 포함)으로 1.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중 60대 이상이 8명이며, 최연소 후보는 47세, 최고령 후보는 69세로 확인됐다.

또 남자가 17명, 여자는 5명, 정당별 출마 비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7명, 더불어민주당 4명 순이다. 비례대표(3명)를 제외한 이들 지역구 출마자 19명은 지난 13일 본후보 등록을 마친 후 영천시선관위로부터 추첨으로 각각 기호 및 번호 배정을 받았다. 이들은 또 일찌기 예비후보등록 후 100% 본후보 등록까지 마치면서 중간 포기자는 없었다.

★ △가-선거구(북안·서부·완산·남부), △나-선거구(금호·청통·신녕·화산·대창), △다-선거구(동부·중앙), △라-선거구(화북·화남·자양·임고·고경), ※국민의힘=(국), 더불어민주당=(민), 무소속=(무)

가-선거구 민주당 최순례 후보는 7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이번 8대에서는 지역구로 재선을 노린다. 나-선거구 민주당 김형락 후보는 6대 영천시의회에서 다-선거구로 시의원에 당선돼 7대에는 낙선했다. 이번 8대에서는 자신의 지역구를 변경해 나-선거구로 옮겨 의회 복귀를 노린다. 다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병하 후보가 공천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면서 민주당 김형락 후보와 유권자가 중복이 일어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곳이다. 이곳은 모두 7명이 출전해 3명이 의회에 입성하게 된다.

또 지난 선거에서 정원 3석 중 1석밖에 건지지 못했던 나-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조영제 의장

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상호·서만울·김종욱 세 신인을 내세워 100% 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영천시의회 최고의 격전지인 다-선거구는 인구수가 37,611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영천의 정치 중원인 이곳에 모두 6명이 격돌한다. 시의원 정수가 3명인데도 국민의힘은 하기태 전 영천시행정자치국장장과 현역 이영기 의원 두 후보만 출격시켜 모두 당선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종천 후보는 이번에 다-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한다. 앞서 4선 정기택 의원과 조영제 의원은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고 물러난 바 있어 4선인 전 후보의 이번 5선 성공 여·부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라-선거구는 2명 정수에 3명이 출마했다. 세 후보 모두 국민의힘과 관련 있다. 권기한·이갑균 후보는 국민의힘으로 두 후보 모두 입성을 노리는 반면 권 후보와 경선 논란을 불러오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정구 후보의 설욕전이 성공할지 관심 대상이다.

이번 출마자 기호는 각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다수석을 기준으로 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 기호 2번, 정의당 기호 3번으로 배정받았다. 무소속의 경우 기호 각 선거구별 4, 5, 6, 7...으로 이어진다

각 후보가 배정은 기호 및 번호는▲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최순례 후보가 1번, 국민의힘 우애자 후보 2-가번, 국민의힘 김선태 후보 2-나번으로 배정됐다. ▲나-선거구는 민주당 김형락(1), 국민의힘 김상호(2-가), 국민의힘 서만울(2-나), 국민의힘 김종욱(2-다), 무소속 조성락(4), 이영우(5), 김병하(6), ▲다-선거구 민주당 조창호(1), 국민의힘 하기태(2-가), 국민의힘 이영기(2-나), 무소속 김용문(4), 정희영(5), 전종천(6) ▲라-선거구 국민의힘 권기한(2-가), 이갑균(2-나), 무소속 서정구(4)

영천시 공무원,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로 농가 '함박웃음'



[가족행복과]
영천시 가족행복과는 지난 13일 유문조 영천시청 관현대행 및 직원 15명과 함께 도림동 A씨 농가를 방문해 복숭아 적과 작업을 했다.



[홍보전산실]
영천시 홍보전산실은 지난 12일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직원 8명이 청통면 계지리 1600여㎡ 마늘밭에서 마늘종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과수한방과]
영천시 과수한방과는 지난 9일 15명의 직원이 화산면 가상리 마늘밭 2,000㎡의 마늘종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회계과]
영천시 회계과는 지난 10일 15명이 청통면 신덕2리 자매결연마을을 찾아 자두 적과와 마늘종 제거등으로 일손 돕기를 했다.



[서부동]
지난 13일 같은 날 서부동 10여 명은 쌍계동 최 씨의 약 2,000㎡ 포도밭을 찾아 포도 순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인구교육과]
영천시 인구교육과는 지난 10일 11명이 임고면 평천리를 찾아 마늘밭 3,569㎡의 마늘종 제거 작업으로 일손을 도왔다.



[기술지원과]
영천시 기술지원과는 지난 11일 화북면 오산리 복숭아 재배농가를 찾아 복숭아 적과 작업을 통해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



[건설과]
영천시 건설과는 9명은 고경면 오류리 3,076㎡의 복숭아 재배농가에서 적과 작업을 도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화남면]
화남면 3개 부서는 34명이 대창면 신광리, 화북면 오산리, 화남면 귀호리를 찾아 복숭아 적과, 마늘종 제거 등을 작업했다. 장지수 기자

단포초, 노계박인으로 선생 발자취 따라 문학여행

단포초등학교(교장 서영진)는 지난 13일 학교 특색교육의 하나인 '시로 가꾸는 동산(시 울림 학교)' 활동으로 '우리 교장 시인 문학관 탐방하기' 프로그램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로 학교는 영천의 3선현 중 한 분이신 노계 박인으로 선생의 발자취가 담긴 노계 문학관과 도계서원을 탐방했다. 프로그램은 노계 박인으로 선생의 문학정신과 성경 충효 사상을 배우고, 야외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자연 풍경을 감상시

키며,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다. 서영진 교장은 "이번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한우 기자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경북에서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7일 개최돼 20일까지 구미 박정희체육관을 비롯한 경북내내 8개 시군에서 17개 종목에 초·중·고 선수 및 임원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경북도는 이번대회를 '열린 마음으로 희망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미

래를!'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에 중점을 뒀다. 120분간 감동과 화합의 무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개최식은 장애인 연주단의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의 선율을 시작으로, 개식통고, 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환영사, 대회기 게양, 주제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도는 또 박정희체육관 북문 앞에서 관광·농특산물 홍보관, 로봇 조작 체험, 피에로 풍선아트, 저글링·마술공연 등 부대행사를 개최해 개최식에 참여한 선수, 가족,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대회를 꾸렸다. 한편,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구미를 중심으로 11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36개 종목에 초·중·고부 선수와 임원 등 1.7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박한우 기자

폴리텍 로봇캠퍼스, 여성 재취업과정 교육생 모집

3D모델링·프린팅과 사무자동화 만 15세 이상 여성 누구나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학장 이연보, 이하 로봇캠퍼스)가 여성재취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6월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6월 20일부터 약 두 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대상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15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역량을 강화시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3D 모델링·프린팅 기술 및 사무자동화 역량 강화로 실재산업현장에서 다루는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수업이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디지털 전문기술분야 취업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로봇캠퍼스는 이번 교육에서 ▶ 각 분야 10년 이상 경력 실무자 교수진 강의 ▶ 최신 장비 및 교육시설 ▶수료 후 취업알선까지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으로 무료이며, 개인별 출석률 80%에 한해 매월 훈련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김효정 기자



장지수의 노트



장지수
기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일지를...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은 '昏庸無道(혼옹무도)'

이재명과 문재인. 이 두 사람은 지금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닐 게다.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검찰에게서 수사권이라는 칼날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 이 두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을 죽이려 했던 자들, 그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짐작케하는 부끄러운 민낯인 줄 그들만 모를 것이다.

'검수완박'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이 쓴 총알을 어디 막을 수 있을지 역사에 물어봐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껏 국민이 쓴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 폭망 중이다. 당 전체가 걸려도 너무 더럽게 걸려 연이은 망신살을 당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이 터졌다. 민주당은 행여 6.1지방선거에 악재가 될까 박완주를 즉각 제명 조치하면서 신속한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 국민이 모두 알아차려 버렸다. 수없는 성폭력, 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가 나왔다하면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까!

국민들은 이럴 것이다. 또 성범죄 사건 터졌네, 또 민주당이네 이럴 것이다. 특 하면

터지는 성범죄 일지를 한번 살펴보자!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여배우 관련 공짜연애 이재명 전 성남시장, 또 최근에는 김원이 의원실 성폭력사건, 최강욱 의원의 '찹쌀이' 성희롱 발언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하면 모두 모두 민주당 사람들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만진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이같은 팩트들 만 나열해 놓고 보면 어쩌면 민주당 사람들의 무리(당)생활 환경까지 의심스럽다. 무리들의 일반 습성일지 모른다는 느낌이 나만의 생각일까? 또 최강욱 의원은 김원이 의원 보좌진의 동료 여직원 성폭행 이후 2차 가해 의혹까지 조사를 받고 있고, 신동근 의원 보좌관은 택시 안에서의 성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민주당 한 서울시의원은 상습적 성희롱 발언과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건이 당윤리기구 조사에서 확인돼 제명처분 직전 스스로 탈당계를 내는 꼼수까지 썼다. 또 올 2월에는 김천시 민주당 한 의원도 성희롱으로 당원권 정지 등 3개월의 중징계를 당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5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인천 계양 국회의원 후보가 술집에서 지나가는 길에 여성을 꼭 찌르고 도망간 것이 나에게서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일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잊을 만 하면 툭툭 터지고, 떠오르는 민주당의 추악한 성추행들은 결코 탁현민 청와대 전행정비서관의 여성비하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 하다.

탁현민의 2007년 발간 대담집(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에는 "고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썼다 단지 성관계의 대상이니까, 학창 시절 임신한 선생님들도 색시했다." 라고 기록돼 있다. 그의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에는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뭘가 받쳐입지 마라, 상의를 입고 숙일 땀 가슴을 가리지 않는 편이 좋다, 콘돔 사용은 성관계에 진정성 의심" 등 성관련 비하 발언들이 뽁뽁하다. 어쩌면 주사파들의 일상 기록일지도 모른다.

과거 운동권들이 여학생이 남학생 선배에

게 '형'이라고 호칭 했던 이유가 소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는 '무성화' 의식교육 이었나 보다. (지금도 가끔 이런 '형'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색스를 예사롭게 여기기 일쑤다. 모두 막시즘, 레닌주의를 익힌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들이다.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비서실장 등등 지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참모의 절반이 바로 이같은 주사파 출신들 입을 나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어쩌면 6.1지방선거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더불어만진당의 이름 만으로도 이미 폭망할지 모른다. 오죽하면 민주당 지방선거출마자가 이런 프랭카드를 내 걸었을까! "나는 절대 아니예요, 나는 달라요"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없다. 민주당 경남 산청군 한 도의원 후보는 "저는 여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수막을 내 걸었을까? 또 '송트남'은 누구의 별명일까?

국민들이 외치는 '만진당' 목소리에 민주당 사람들도 이제 신물이 날 것이다. "연이은 성범죄 문제로 민주당의 일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때문에 "제명이라는 꼼수로 눈가리고 아웅식 꼬리자르기의 민주당 정치 행태를 보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탈당해 국민의힘 충남지사와 천안시장 지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민주당은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의 잘못된 정치로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러운 의미인 '혼옹무도'라 할만하다.

어쩌면 이번 6.1지방선거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국민의힘 완승을 장담한다. 돈을 싫어하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늦어도 5월25일까지는 전국 소상공인 370만명의 통장에 1가구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꽂힌다는 소식이다. 370만명의 소상공인에는 각각의 가족이 있다. 유권자 한 가정당 3명으로 기준잡아도 총 1,110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또 택시기사, 예술인 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6.1지방선거에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에는 엄청난 호재이자 민주당으로서는 딱히 막을

방법도 없는 엄청난 악재다. 코로나손실 보상금 공약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에 딱히 발목을 잡을 명분도 없다. 4.15때 민주당이 코로나지원금 100만원씩을 전국민에게 쏘면서 이용해 먹었던 바로 그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주장해 봤자 먹히지 않는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회 통과를 안시켜줄 경우 그것이 민주당을 더 큰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지방 선거를 코앞에 둔 시가라는 점에서 유권자 천만명의 통장에 이같은 금액이 꽂힌다는 것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을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국회에 제출되고, 임시국회가 열려서 의결되면 늦어도 오는 25일까지는 소상공인들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된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6월1일 선거일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그야말로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된다. 일단 돈을 받고 나면 윤석열 정부가 예쁘게 보이게 되어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이번 6.1지방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의 폭망이 예상되고도 남는다. 6.1지선이 끝나면 아마도 민주당은 당 존재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조선 제일 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임명됐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한동훈 장관후보 청문회에서 발견했다. 더불어 민주당에 '이 모씨'를 '이모'로, '한국 쓰리엠' 회사법인을 한동훈 자녀 '한00'으로 헛발질하며 국민을 웃겨주는 코메디가 있는 한 민주당은 아니 만진당은 이번 지선을 끝으로 영원히 한국 땅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수상한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도 중국 공산당도 북한도 아니다.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망가뜨리려 했고, 지금도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면서 삼성의 발목을 비틀었다. 초격차 원전 기술을 파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있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천시보건소, 지역 내 7개 '마음성장학교' 운영

영천시보건소는 10일 금호 중학교와 휴먼테크고등학교(구, 금호공고) 2곳을 '2022년 신규 마음성장학교'로 선정해 사업 설명회와 현판식을 열었다.

마음성장학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소년의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요구도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를 통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목적으로 7개 중·고등학교에서 추진한다.

마음성장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각종 정신건강 관련 교육, 자해, 자살 행동에 대한 조기 개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김효정 기자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

영천시 보건소는 지난 9일부터 행정복지센터 16개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24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폐의약품 배출시,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폐의약품을 하수구나 일반 쓰레기로 혼합 배출할 경우, 토양·수질 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의 원인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때문에 안전한 배출방법과, 수거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누적된 약품은 월 1회 수거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보건소 의약담당(☎054-339-7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올해 영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시작

기초부터 기술 과정 까지 경북테크노파크 1인미디어 교육 '별별아지트' 개강

영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동영상)

제작 2022년도 1인 미디어교육(크리에이트교육)이 10일 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지원센터에서 개강됐다.

이날 개강 및 교육 착수보고회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신청 교육생들의 반 편성, 연간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교육 일정 안내, 교육생들과 강사들 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1인미디어 교육프로그램 명은 '별별아지트'를 주제로 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재)경북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고 연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상시 운영, 전문교육기관 연계해 시민들에게 체험형 무료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인미디어 교육프로그램 '별별아지트'에서 과정별 77명 수료, 주말 체험반 8과정 115명, 직장인 야간반 2회 운영, 지역 우수기업 선정 브랜드 콘텐츠 제작 지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개최 등의 교육 실적이 있다고 (재)경북테크노파크는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 '배이직과정', ▲ '심화교육과정', ▲ '고급교육과정', ▲ '기술과정'으로 수준에 따른 체험으로 이뤄진다. 박한우 기자

동정

6.지방선거 압승 결의 다져.



이만희 의원은 지난 16일 경북도당에서 지역 당 후보자들의 전원 압승을 위한 필승 결의를 다졌다. 또 이 의원은 17일에도 이번 지선 선거대책 본부장들과 오찬을 갖고 "반드시 이번에는 영천시장 탈환을 하겠다"면서 모두 원팀으로 각 후보들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성명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18일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도지사 후보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 통합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행보에 공감을 표한다"면서 "역사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으로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당부



주원영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8일과 19일 이틀간 관내 초, 중, 각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 교사 33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역량제고 연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주 교육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해 허위 기재 및 부당 정정 행위가 없도록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강조



김용태 영천소방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사고율이 높아지자 이륜차 운전자들의 기본 교통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나섰다. 김 서장은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안정성이 취약하므로 헬멧 및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선도전 이철우 후보 “지방시대 열 것” 필승 결의

경북도당서 출정식·기자간담회 가져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지난 16일 국립영천호국원 방명록에 '호국 영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충성을 맹세합니

다라고 적었다.

이 경북도지사 후보는 이날 경북도당에서 출정식과 기자간담회 후 영천 호국원에서 영천·경북지역 국민의힘 후보자들과 지방선거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날 영천에서는 이만희 의원과 영천시역 후보자 전원이 참석해 이철우 후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정부)-국회의원-경북도-영천시-시·도의회가 일치 단결해 단 한 명도 낙오 없도록 압승 결의를 다졌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위원회 5월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행사 실시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위원회(위원장 박찬웅)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지역 내 취약장애인 어르신 60세대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잇따라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날 기념 선물을 지원하는 가정의 달 행사를 실시했다.

권순준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장애인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활력이 주어졌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의회,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경북 영천 지역 농번기 일손돕기가 5월 들면서 본격 시작됐다.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 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6일 임고면 덕연리 소재 A복숭아 농가를 찾아 온종일 봄철 농촌 일손을 돕고 돌아왔다. 이날 17명의 직원들은 조영제 의장과 함께 각 조를 편성해 복숭아 적과와 밭 정리 등으로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A농가는 "본격적인 영농철인데 코로나19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도 어려운 이때 영천시의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너무 고맙다"며 수확기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도 했다.

최근 영천지역은 농번기 일감이 늘어나자 일부 농가들의 인력 가로채기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려있다. 영천시는 지난 달 18일 농촌인력 수급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도 무허가 용역업체 관리, 외국인근로자 확보, 농기계 지원 등 농촌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조영제 의장은 "어려울 때 함께 나누고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농가를 찾았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일손부족의 문제를 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한우 기자



‘청마골프동호회’ 회원 모집

5월은 어른들의 소풍 골프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체육활동이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자연과 함께 푸른 잔디에서 시원하게 날리는 맛! 누구나 공감하는 골프의 매력입니다.

저희 '청마골프동호회'는 신규회원이 함께 즐기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창립일 : 2014년 12월 6일(회원수 : 52명)
회비 : 남성(3만원), 여성(2만원)/월

[필드라운딩]
캐IP 지원
전반기 2회 : 5월과 6월
후반기 2회 : 9월과 10월
<일정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 김경수, 총무 정용락
연락처 010-5912-6613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비사업용토지, 종과세율 적용 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1년에 2%씩 최대 30%
정부, 비사업용토지 종과세 제도 개정
부담 세액 2배 늘어날 수도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여 항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로 활용하지 않거나 유향토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알아본다.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이 되면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종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비록 비사업용토지가 되어 종과세를 적용받는다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최대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됨에 따라 각종 대출 및 세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를 피해 토지나 상가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동산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정부에서는 토지 등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과세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이외에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던 단기양도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단기양도세율이 동일하게 바뀌는 것이다.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적용하는 종과세율도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겠다고 하였다. 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더욱 과세를 강화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비사업용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높아진 세율까지 적용하게 되면, 부담하는 세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확정되기까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법 개정 시행 이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시·군 법원에서의 재판 범위

-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 민사
- 관할 화해, 지급 명령 사건
- 협의 이혼 및 20만원 이하 벌금(형사)

문 광역 지방법원이 아닌 시·군법원에서 하는 재판의 범위 어떤 것이 있을까?

답 시·군법원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등기소 건물 내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과는 다르고 다음과 같은 사건을 관할한다.

먼저 민사사건으로는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과, ② 화해사건·독촉사건(지급명령사건) 및 조정사건에 관한 사건을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여기에서 소액사건이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한다.

다만 제소 당시에는 소액사건이었다라도 소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나,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반소의 제기, 또는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탈락시킨다.

그리고 시·군법원에서 관할하는 화해사건이나 독촉사건(지급명령사건) 또는 조정사건은 소가에 관계없이 또한 소액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하므로 소가가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독사건 또는 합의사건에 해당하는 사건도 재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사사건으로는 협의이혼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청은 시·군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을 취급한다.

또 시·군법원은 민사집행사건도 일부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제4호)

즉 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사건이나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 ②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이 그것이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사설]

영천시 보여주기식 인구증가 시책 이제 그만
육아·교육·보육지원 하나라도 바로 정착해야

"영천시 인구정책은 실패한 시책". 첫 방향부터 잘못 설정했다. 출생은 줄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국내 합계출산율 0.81로는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인구 늘리기 단기 시책은 있을 수 없다. 멀리보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 영천의 먹거리를 위한 장기적 근본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런데도 영천시는 4년 동안 보여주기식 실적에만 매달렸다. 물론 인구가 늘어야 한다는데는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불법과 꼼수로 자신을 과대 홍보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직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2018년 취임하자마자 11만 인구 목표를 자신했었다. 4년 후 결과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다. 자신의 재임 선거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취임 해 연말보다 103명이나 줄어든 101,429명이라는 낙제점 성적표다.

그동안 영천시가 펼쳤던 인구증가는 그저 시민들에게 노력한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한마디로 억지 춘향이다. 전국적 현상이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생활의 여유다.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 키우기가 겁난다는 뜻이다. 정부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하나, 인구 문제는 복잡한 사회요소와 함수관계가 존재해 쉽지 않다는 것이 시의 항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 출생 변화율만 살펴봐도 차선책으로 시가 무엇보다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00가구당 출생가구는 소득 하위층 1.34, 중위층 3.56, 상위층이 5.78가구라고 발표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은 낮을수록 출산도 낮다. 소득을 높여주고 아이키우기를 편하게 그리고 고학력 출산율 증가에 뭐라도 펼쳤어야 했다.

결국 일자리, 무상보육 정책, 젊은 청년들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데 영천시가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묻고 싶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취업자 수만 늘리는 노인 일자리와 정부지원 희망일자리 등 보여주기식 시책이 대부분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도 실시하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화하고 있다. 허구 시책 지적을 받는 이유다.

출산 편의를 돕는다며 산부인과를 만들어 최 시장 홍보에만 이용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28억원을 들여 기자재를 사 주고 40년간 매년 5억원씩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지만 출산율은 반대로 월평균 5.5명씩 줄었다. 이용률도 출산보다는 피부미용 등으로 변이돼 세금만 낭비한 꼴이 아닌지 우려된다.

종이인구 늘리기 시책은 불법이다. 3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억지 주소 옮기기를 강요했지만 매년 500여명씩 교체되면서 정주 인구는 늘지 않고 재난지원금 수억원만 먹튀하는 꼴이다. 공무원 위장 주거를 강요했는가 하면 헌법에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까지 무시하고 공무원 승진을 명분으로 주소옮기기 실적제도 도입은 범법행위다. 오죽하면 노조가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인구시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지난해 9월 영천시는 합계출산율 2년 연속 도내 1위라며 대대적으로 최 시장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민선 7기 들어 출산기반조성의 노력과 출산장려금 지원, 분만환경개선(제이병원 개원), 임신 후 엽산·철분제 제공, 임신부 1,000원택시, 임신부 20만원상당 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최대 70만원) 지원, 임신부 및 신생아 등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 돈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했다. 알고 보면 꼼수였다.

전임 김 시장으로 치면 3선 내내 4년 연속 1위였다. 도농복합·군소 단위 특성상 영천시는 합계출산율을 대도시에 비해 높게 받는 선물이다. 최기문 시장이 까먹어도 까먹어도 줄곧 1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는 반대로 신생아 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최 시장 출산장려 인구시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출산율 반등 OECD국가를 살펴보면 현금을 뿌리기보다 육아·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회복된 OECD 주요 국가들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육아·교육·보육지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현물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뒤늦게 시가 "올해부터 출산이 아닌 머무는 유동인구 늘리기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기존 출산 시책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시는 청년들 없이는 근본적 인구증가는 요원하다고 봤다. 종전 인구증가 시책 보다 청년들의 활력을 되찾는 시책을 발굴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유출은 막는 주간인구 즉, 머물다 갈 수 있는 유동인구 늘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중이다.

본지는 4년 전부터 "인구 10만 이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년 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영천시는 명심해야 한다. 마냥 홍보성 퍼주기인구시책 보다는 또 보여주기식 억지 인구늘리기 정책보다는 미래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라도 육아·교육·보육지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시키길 바란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통령 취임식 중 머리 위 선명한 무지개 “나라가 바로 설 징조”

(SNS)누리꾼들, "윤 대통령 오늘 부터 5년의 무지개 꿈 꾸시길 바란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하는 도중 국회의사당 머리위에 무지개가 떠올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맑은 하늘의 무지개는 그리 흔하지 않은 터라 좋은 징조라며 입을 모았다.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취임식장 하늘이 취임사를 하는 중간에 국회의사당 앞쪽 서편 하늘에 갑자기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날 하늘은 비온 뒤도 아니며 맑고 청명했다.

이를 두고 취임식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이렇게 맑은 하늘인데 비가 온것도 아니고 정말 신기하다, 새 대통령을 하늘도 축하한다."며 취임식을 축하했다.

취임식 단상 위에 자리잡고 있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무지개를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유! 자유! 자유! 무지개!!"라는 글을 게시해 사회관계망(SNS) 누리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하는 동안 '자유'라는 단어를 35회나 강조했다. 3만5천여 초청인사들이 모인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그 위로 선명한 무지개 모습이 담겨 장관을 이뤘다.(사진)

누리꾼들은 "이제야 나라가 바로설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오늘 부터 5년의 무지개 꿈을 꾸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장지수 기자

제20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텡 아르상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

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지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

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